**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가복음 24장 13-35절>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난 길을 두 사람이 힘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걸아가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들었던 예수 부활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연스럽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질문을 받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며 걸음을 멈춥니다.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길인 듯 한데, 지난 며칠 동안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고결하시고 능력많으신 분이 십자가라니요… 정말 우린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소식을 들었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그분의 무덤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길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다른 두 제자, 과연 시체가 없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하고 혼란스런 마음뿐이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참 마음이 무디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이런 일이 정녕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십니다.

이윽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하자 그들은 간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밤 여기서 묵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에 응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들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곧장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함께 걸어가는 이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곰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부활은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믿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바울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어떤 이들에게 부활은 이미 식상한 교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대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는 신앙,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그 안에 감격이 없는 예배, 이 아이러니한 무기력 속에 문득 내가 갇혀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의심과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배신자 베드로에게도, 의심자 도마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낙심자 글로바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이후 인생은, 마치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변화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결코 초대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연코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을 경축하며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이후 그들의 삶에 작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그 작은 기적들을 타고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아직 소식으로만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벌써 식상한 교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나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그 옆에서 대화하던 사람이 주님인 것을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은 그들에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무기력에서 끌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우리들 사이에 불쑥 끼어들어 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려져 있던 눈이 열립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던 걸까,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뭐 별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못 알아봄의 원인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15-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속박의 현실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바람을 어찌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또 그 바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바람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려온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이성 안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상당수는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을 철저히 배반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왕이 돼 주셔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그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바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제껏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일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외면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던 욕망과 바람이,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로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내 욕망과 바람에 갇혀 있는 답답한 나의 실존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 부활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지성은 다시 크신 하나님을 향해 열립니다. 내 욕망과 바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철회합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당신의 방법대로 성취되기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내 좁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계획을 스스로 거두어 들입니다. 대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눈이 진리와 생명을 향해 열리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이 여정은 세상 끝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 부활의 빛 속에서 늘 내 좁은 시야를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뜨꺼워집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어서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이 다른 인생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기쁨과 슬픔, 편안함과 고통, 명료함과 혼란스러움, 확신과 의심, 관계와 고립, 희망과 절망, 순종과 불신, 자신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로의 회심과 함께, 우리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편안함, 완전한 명료함, 완전한 확신, 완전한 관계, 완전한 희망, 완전한 순종, 완전한 자신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유보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로 인한 삶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내면으로부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다른 인생과 구별짓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코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내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이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시간을 더 함께해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눈 앞에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가 닿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넓어집니다.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감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슬픔과 절망이 그대로 끝이 아님을 느낍니다. 내 슬픔과 절망, 아픔과 상처, 의심과 불신, 불확실과 무기력을 십자가에서 있는 그대로 품으신 예수님은,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 삶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모든 죽음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참 생명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의 나날들 속에서, 그는 많이 치쳐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너무나 낙심되는 일이 있어 몹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그렇게 상복을 입다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죽음의 몰골을 하고 앉아 있는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 속에서, 그는 그렇게 잠시 머물러 있던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으며, 마침내 종교개혁을 현실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평생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마음을 함께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본문의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 눈 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 좀 더 계시면서 그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라지셨을까?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짧은 한 순간의 체험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지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는 예루살렘은 결코 영광의 자리, 안락의 자리, 출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두려운 곳, 불확실한 곳, 그리고 고난이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 예수가 그곳에서 단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다시 그곳으로 가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몸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 안에 여전히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상 시인의 <부활송>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부활송**구상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 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희와 같이 선교사 파송을 받은 한 가정은 지난 번에 원전폭발로 방사능 누출이 심한 일본의 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그곳을 빠져나오려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거기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단 이런 해외 선교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끌어안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부활의 빛 속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혐오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절정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체계에 속하게 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체계에 밀어넣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을 미리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억지가 아닌 소망과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용서 받았기에 용서하고, 섬김 받았기에 섬기고, 사랑 받았기에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부활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 안에서 늘 동행하면서, 겸손한 눈, 뜨거운 마음, 담대한 발걸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